

대세는 체크카드... 사용액 사상 최대

불황에 알뜰소비 확산...작년 80조 이용 건수 31%·금액 20%·발급율 4% 늘어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8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가 확산한데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용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사용대금을 지불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물품구매 시 은행 계좌에서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선불식'이다.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체크

카드 사용건수는 24억9000만건, 사용액은 83조1110억원이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31%, 금액으로는 19.6% 늘어난 수치다. 작년 신용카드의 사용건수와 사용액 증가율이 13.4%, 3.8%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크게 웃돈다. 물론 사용건수나 사용액에 있어서 여전히 신용카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건수는 75억건, 사용액은 561조8580억원이었다.

그렇지만 체크카드의 일 평균 사용 실적은 681만건, 2271억원으로 2011년 529만건, 1900억원을 압도했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침체에도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8789만장으로 전년(8464만장)보다 3.8%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2011년 1억2214만장에서 1억1623만장으로 2008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체크카드가 인기몰이하는 데는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한 금융 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라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려는 알뜰 소비 풍조가 역할을 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신용카드(25%)보다 상향한 점이 직장인 가구의 카드 사

용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이 강화된 것과 달리 발급이 쉬운 점도 체크카드를 찾는 수요를 늘렸다.

이에따라 업계는 올해 체크카드 발급장수가 신용카드를 처음으로 앞지를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카드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부가혜택도 늘려 신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외환은행은 6개월 사용후 할인혜택이 2배로 커지는 체크카드와 월 최대 30만원까지 신용 결제할 수 있는 '외환 하이브리드 체크 서비스'를 개시했다.

은행서비스를 못하는 삼성카드 등 전업카드사는 은행권과 손을 잡고 채



카드 출시를 서두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 카드업계의 대세는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내수 침체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액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지난해 모두 감소했다. 신용카드는 5만3000원, 체크카드는 3만3000원으로 각각 2000원, 4000원 줄었다. 그만큼 경기둔화로 사용자들이 소비를 꺼렸고 소액과 추세가 지속됐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재형저축 금리 3.2~4.5%

금감원 약관 확정...4년째부터 변동 적용

오는 6일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로 정해졌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주어진다. 대부분 상품이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3월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해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연 3.2~4.5%다.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한다.

재형저축 금리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예초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치열한 '눈치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금리 3.2~4.5%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가 포함됐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서민 재테크' 상품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월 100만원폭이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관계없다.

연합뉴스

노후대비 '뒷집' 개인연금 미가입 78%

전국 가구 5곳 중 4곳은 개인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은 더욱 심각하다.

공적연금과 별도로 개인연금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3월 금융감독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5732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패널조사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은 6.7%에 그쳤고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 가입률은 11.5%였다.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는 3.4%였지만 나머지 78.4%는 미가입 상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져 개인연금 1.1%, 종신보험 2.8%, 둘 다 가입한 경우는 0.2%에 그쳤다. 미가입률이 무려 95.9%였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개인연금 가입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 미가입률이 2006년 83.2%에서 2007년 78.8%, 2008년 81.3%, 2009년 79.0%, 2010년 79.8%, 2011년 78.8%에 이어 작년에도 78% 수준이었다. 저소득층 미가입률은 94~96%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우리도 광주은행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28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13주동원의 연수과정을 마친 27명의 2013년 상반기 새내기 행원들을 대상으로 신입행원 입학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첫 20% 돌파

신규대출은 감소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대출 확대에 힘쓴 영향으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신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줄었다.

3월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 기준)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1.8%였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9.5%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

화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형 비가치식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힘쓰면서 1년 사이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크게 늘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출시한 지난해 3월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적극대출은 유통화에 적합하도록 주택금융공사에 정한 기본 조건에 맞춰 각 은행이 설계해 판매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지난해에만 판매 실적이 1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1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전보다 감소했다.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한국은행이 1분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1월 예금은행의 신규대출액 기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율은 36.5%로, 지난해 11월 50.5%를 기록한 이후 두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은행권에서는 비록 고정금리대출의 인기가 다소 식기는 했지만 고객들이 다시 고정금리대출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 GAP 인증 실무교육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인제개발원에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심사원 자격 소지자 20여명을 대상으로 GAP 인증 컨설팅 이론·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검사, 수확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위해중금속 검사, 세척·선별·포장 작업과정 검사 등 생산부터·유통·판매단계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역본부 컨설팅 인력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전국주요지방을 구축, GAP 희망농가에 더 쉽고 빠른 컨설팅을 지원해 제도활성화에 기반을 만들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알뜰폰 가입 150만 시대

4개월간 10만명씩 늘어...KT 제휴 68만명 '최다'

저렴한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알뜰폰(MVNO)'이 가입자 15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3월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제휴사 45만6000명, KT 제휴사 21만8000명 등 총 135만7000명이다.

최근 4개월간 알뜰폰 가입자 수가 한 달 평균 약 9만7000명씩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알뜰폰 150만 가입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가입자 돌파 시점은 작년 10월 중순이었다.

5360명 규모인 국내 전체 이동통신 시장 속에서 알뜰폰 가입자 150만명은 2.8%의 점유율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SK텔레콤 등 기존 이통3사가 알뜰폰 업체와의 경쟁을 내놓는 등 자체적인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는 물론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도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알뜰폰 업계가 성장한 데는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CJ헬로비전, SK텔레콤 등 대기업 계열사가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업계가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장의 기회를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접점한 포화 시장 속에서 선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 5개월여만에 50만여명을 추가로 모은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특히 기존 이통 3사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알뜰폰 업체들은 유통망을 확대하고 단말기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는 물론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도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알뜰폰 업계가 성장한 데는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CJ헬로비전, SK텔레콤 등 대기업 계열사가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업계가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로얄관광여행사 (순천 성동초교 로타리)	061)753-6788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화사한 봄나들이 가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기기묘묘한 절경 장가계!

4월 01일 ~ 5월 17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총 14회)

장가계 직행

[CJPF01-FM] 장가계/원가계 4일/5일 '발마사지' 849,000원~	[CJPF01-FMA] 장가계/원가계 4일/5일 '명품호텔' 1,149,000원~
[CJPF01-FM1] 장가계/원가계 4일/5일 '호텔업그레이드' 949,000원~	[CJPF01-FMD] 장가계/원가계 4일/5일 '도드림' 1,249,000원~

북경 상해/항주/소주

[CBPF01-OZG] 착한 특가 4일/5일 329,000원~	[CCPF01320MUK] 3월 20일 단, 하루 특가! 4일 348,000원~ 299,000원~
------------------------------------	--

광주/전남 기획상품

[JKP776-BKF] [국내수송포함] 일본·북큐슈 4일 부권패키지 349,000원~
[AVQ140-ZA3] [국내수송포함] 베트남/캄보디아 6일 1,280,000원~ 1,180,000원~
[IPAQ421-KE] [국내수송포함/유류세포함] 호주·뉴질랜드 10일 4,090,000원~ 3,790,000원~
[EIMQ306-KE] [유류세포함] 터키 일주 9일 '국내선 2회' 3,590,000원~

국내/제주도 상품

[AKPK73] [패키지] 제주도 3일 생생 웰빙투어/세계자연유산 318,000원~	[AKAK72-79] [자유여행] 제주도 3일 속수+항공+렌트 포함 304,000원~
--	---

하나 free

특가 추천 호텔

[상지포리] 미나미 케이 센트 USD 42부터 (조식포함)	[다사포리] 세리온 미야오 호텔 USD 13부터
[다사포리] 그랜드스 인 오사카, JPY 54부터 (세탁, 조식포함)	[무] 노보텔 푸켓 민디지 비리 USD 136부터 (조식포함)